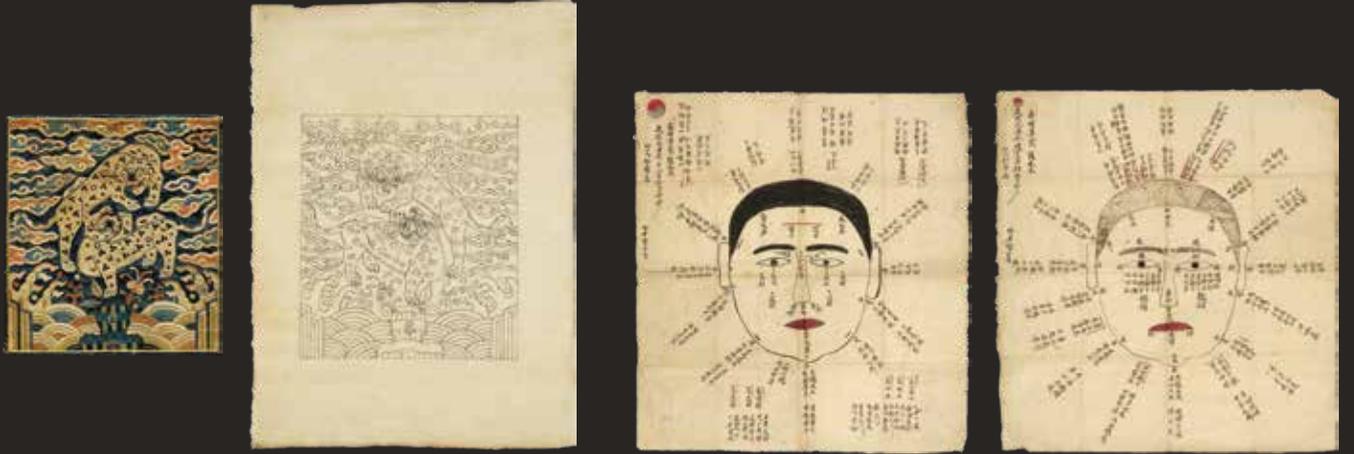


## 완성으로 가는 첫걸음, 초본 草本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작품의 골격을 잡거나 연습한 결과물을 통틀어 초본 草本이라고 한다. 문학작품이나 상소문 등에 문장이나 표현을 가다듬은 초본, 수를 놓기 위한 수본 繡本, 불화를 그리기 위한 초본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초상화 정본을 그리기 전 주인공의 얼굴 위주로 연습한 초본도 다수 전한다.



홍배(조선시대)와 홍배수본(제작품) | 16.5×19.2

관상도와 찰색도 | 1949년 | 54.3×50

단위 : cm

## 기름먹인 종이, 유지 油紙

유지 油紙는 생지 生紙에 여러 종류의 기름을 먹이거나 도포한 가공지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방습, 방수성이 우수하며 투명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조들은 그 특성을 이용하여 기름과 종이는 만들고자 하는 공예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다양한 생활용품과 예술작품을 제작해 왔다.



안룡 鞍籠 |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재현 | 윤서형 작 | 64×38



유상 油衫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 재현 | 차귀미 작 | 길이134×도련너비256



지삿갓 | 윤서형 작 | 지름106

단위 : cm

##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의 과학적 분석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이복 초상> 유지초본 3점의 분석과 제작과정 재현, 모사 摹寫 사업이 진행되었다. 분석 방법으로 실측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과학적 분석에는 XRF 분석, 현미경 촬영, 적외선 촬영을 적용하여 사용한 안료와 제작기법,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측조사



XRF 조사



현미경 촬영

# 四.

## 유지초본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초상화는 그림을 보는 즉시 그것이 누구를 그린 것인지 대상 인물을 알 수 있도록 닮게 그려야 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상의 내면을 드러내야 하는 ‘전신사조 傳神寫照(인물의 외형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인격과 정신까지 나타내야 한다는 초상화론)’의 과제를 안고 있다. 육체의 표현을 통해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초상화는 유지초본의 완성을 거쳐 한층 그 목적에 다가간다.



① 유지 유탄초 油紙 柳炭草



② 유지 목초 油紙 墨草



③ 유지 배채 油紙 靑彩



④ 유지 전채 油紙 靑彩



⑤ 상초 上緞



⑥ 배채 靑彩



⑦ 전채 靑彩